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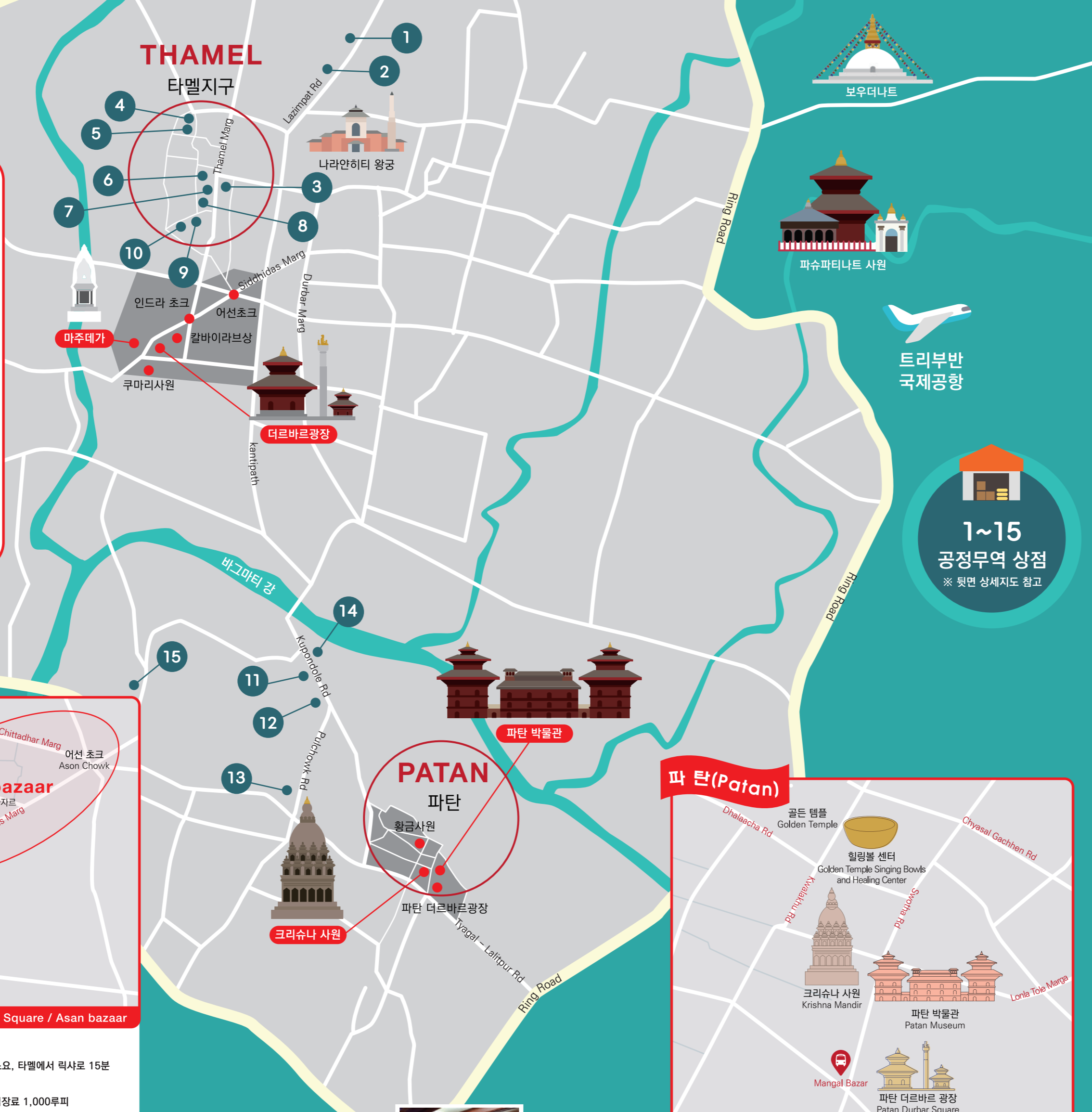
1 DAY COURSE

타멜
카트만두 여행자 거리, 쇼핑천국

파탄
카트만두 계곡 안의 또 다른 고대 도시

더르바르광장
옛 카트만두 왕궁의 중심 광장

아산 바자르
카트만두 최대의 재래시장



더르바르 광장 · 아산 바자르



더르바르 광장(Durbar Square)

위치 트리부반 국제공항에서 택시로 약 30분 소요, 타멜에서 리크스로 15분
주요 볼거리 쿠마리 사원, 마주 데가, 칼바이라브상 등
운영 시간 09:30~16:00(11~1월은 15:00까지), 입장료 1,000루피
소개 카트만두 최고의 변화기인 타멜 남쪽에 위치한 더르바르 광장은 '왕궁'이라는 의미로 옛 카트만두 왕궁의 중심 광장이다. 네팔의 각 왕조는 더르바르 광장의 왕궁에서 즉위식을 하고 왕국을 통치했다. 네팔 왕국의 살아 있는 여신인 쿠마리를 모시고 있는 사원이 광장 남쪽 끝에 위치해 있다.

아산 바자르(Asan baza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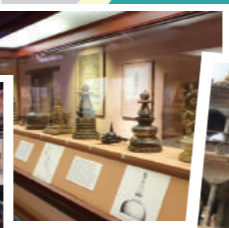
위치 더르바르 광장과 타멜 지구 사이, 인드라 초크와 어선 초크로 이어지는 길
소개 오랫동안 인도와 티벳 사이에서 무역의 중심지이자, 관광객보다 네카의 죽인 현지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카트만두 최대의 재래시장이다. 층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건물에는 생필품, 야채, 곡물류를 파는 가게가 백백이 들어서 있다. 정가 없는 물건이 대부분이나, 현지인과 흥정은 필수!



더르바르 광장



아산 바자르



파탄 박물관



Krishna Mandir

파탄(Patan)



파탄(Patan)

위치 카트만두에서 남쪽으로 약 5km, 택시로 약 30분 소요
주요 볼거리 08:00~18:00, 입장료 1,000루피
운영 시간 더르바르 광장, 크리슈나 사원, 황금사원, 파탄 박물관 등
소개 15세기 이후 박타푸르, 카트만두와 함께 카트만두 계곡의 3왕국 중 하나로, 파탄의 애칭은 '미의 도시'라는 뜻의 랄리투르(Lalitpur). 고대 파탄의 장인들은 카트만두 계곡에서 제일가는 솜씨를 자랑했는데, 현재 남아있는 유적들에서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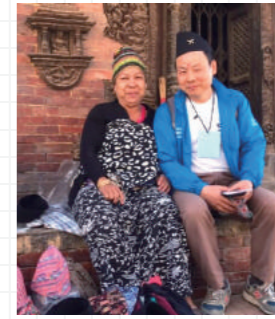
이건 꼭 해볼만두 list



A 비자발적(?) 파탄 투어

파탄 도착과 동시에 누가 봐도 관광객 티 팍팍 내는 우리에게 한 현지인 이 다가왔다. 상당히 저돌적인 현지 가이드. 스스로 일을 쟁취한다. 그는 말했다. "네팔에는 3가지 종교가 있습니다. 부디즘(Buddhism), 힌두이즘(Hinduism) 그리고 투어리즘(tourism)" 관광은 카트만두 사람들의 '업'으로 상당한 부분 차지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파탄/카트만두 내 관광 센터, 인포메이션을 찾아보기 힘들다. 100% 정밀이다. 상주하는 가이드는 1시간 가량 파탄 관광지를 함께 방문하며 설명을 해준다. 장점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증은 Q&A로 바로바로 해결.
2. 책자에서는 보기 힘든 숨겨진 현지이야기는 덤.
3. 사진 촬영 실력이 준 포토그래퍼 수준.



B 깨알 현지인 인터뷰, Namaste!

저그마한 사원 옆자리에서 전통 모자 '토피'를 비롯한 양말, 속옷 등을 판매하고 있는 그녀. 5년째 장사를 하고 있다는 그녀는 토피에도 '금'이 있다며, 비장의 검은 토피를 꺼내 들었다. 용병 쿠르리 뱃지까지 끼우고 나서야 완성된 모자. 이미 2개의 토피가 있음에도, 우리의 티칭 요청은 쉽게 지나치지 못하고 구입. 깨알 인터뷰와 함께, 기념 사진까지 한 컷.

주의 한국의 패키지 여행처럼, 현지 가이드가 안내한 곳에서 물건을 사면, 가이드는 상점 주인으로부터 일정 커미션을 받아간다.



C 네팔 전통의상 입고 Being Nepali.

처음 보는 이색 표지판. '저게 뭐지?' 싶다가도 거리 곳곳 큰 짐을 머리에 이고 가는 현지인들을 보면 네팔리의 고된 삶에 숙연해진다. 네팔리들의 생활상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카트만두 최대의 재래 시장인 아산 바자르를 건다 보면, 금요일밤의 흥대 거리를 거니는 착각이 들 정도로 많은 인파와 함께, 미로같이 이어지는 골목길에 정신이 혼미해질 듯. 비정상회담 수잔의 어머니도 추천해준 핫 플레이스. 이 곳에서 Being Nepali의 첫 관문, 네팔 전통의상을 구입해보는 건 어떨까? 네팔 전통모자 토피와 전통 바지 수루왈 하나면 나도 네팔리가 될 수 있다!!

이것도 해볼만두 l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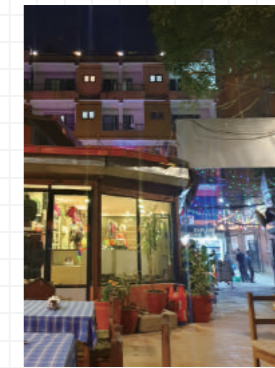
A 네팔 요가체험

인도 요가는 들어봤어도, 네팔 요가는 생소했던 우리는 숙소(Thamel eco resort)에서 진행하는 요가 클래스에 솔깃. 단체 합인을 외치며 협상을 시도해 본다. 통 크게 50% DC를 해주는 범상치 않은 노란 트레이닝복의 요가 선생님. 1시간 동안 '오-음(AUM)' 호흡법을 기본으로, 온 몸을 땀과 땀, 여행 중 노곤했던 피로는 썩 가지고, 상쾌한 아침은 덤으로 얻는 신세계를 경험할 수 있을 것.



B 네팔 현지 가정방문

네팔 현지에서 갑작스레 성사된 수잔 사기야의 집 방문. 네팔 현지 가정집을 방문한다는 실례를 안고, 타멜 거리에 있는 베이커리에서 케익을 구매(700루피)하고 길을 나섰다. 수잔 할머니, 어머니, 여동생과 함께 한 티타임 중, 수잔 사진을 보다 갑작스레 울음을 터트린 할머니에 안절부절할 우리. 문화는 달라도,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은 한 마음.



C 타멜의 밤은 화려하다

타멜 골목에 위치한 Buddha Bar(번역하면 부처 바). 너무나도 경건한 이름에 고개를 가웃거렸지만, 들어가보니 현지의 젊은이들이 모여있는 것이 아닌가? 허름한 간판과는 상반되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신나는 분위기가 우리를 반겨준다. 1층은 칵tail과 스탠딩 바, 2층은 일행들과 소소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공간. 현지 노래에 맞춰 현지 유행 춤을 배워볼 수 있으니 겸허자랑과 반갑게 말을 걸어보자. 현지에서 가장 인기 좋은 곳이라고 하니, 네팔 클럽바가 한번쯤 되보는 건 어떨까? 단, 새벽 1시가 되면 영업 종료니 되도록 일찍 입장하자. 북장, 나이 등 입장 제한은 전혀 없으니 편하게 방문하도록!